

요제프 2세의 개혁이 모차르트에게 미친 영향

오세홍

한남대학교 탈메이지 교양융합대학

The Effect of Joseph II's Reforms on Mozart

Sehong Oh

Talmage Liberal Arts College, Han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1783년에 단행된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이 작곡가 모차르트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 그의 작품 성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요제프 2세가 단행한 교회개혁의 의도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당시 그가 추구한 궁극적 가치관을 정립해 보았다. 같은 시기, 비엔나에 정착한 모차르트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잘츠부르크 시절과 비엔나시절의 교회음악 작곡 수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시대 작곡가들과의 작곡 수도 비교하여 모차르트의 심경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교회음악 작품인 미완성 대곡 [C단조 미사]를 실증적 분석 자료로 제시하여 이 곡이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요제프 2세의 강력한 교회음악 개혁으로 인해 모차르트는 [C단조 미사]의 작곡을 중단하였고 교회음악 작곡에 대한 의지도 꺾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그의 음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프리메이슨으로 인하여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출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차르트의 음악적 다변화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단지 프리메이슨의 영향으로 한정 짓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인 접근이며 그 원인의 시작점은 모차르트의 잠재된 내면세계를 일깨우게 한 요제프 2세의 교회음악 개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음악보다 세속음악에 더욱 몰두하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기념비적인 음악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Joseph II's church reform in 1783 on the composer Mozart and the changes it brought about in his work style. The intention of church reforms promoted by Joseph II was first approach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we have tried to establish the ultimate values he pursued then. Mozart had settled in Vienna at the same time. To understand the influence and determine the change in Mozart's state of mind, the number of church music composers in Salzburg and Vienna was compared and analyzed, and the number of composers was compared with contemporary composers. Furthermore, Mozart's representative church music work, the unfinished grand work [Mass in C Minor], is presented as an empirical analysis material to analyze the meaning of this piece. Our results confirm that Mozart stopped composing [Mass in C Minor] due to Joseph II's strong church music reform, and his will to compose church music was also broken. Thereafter, influenced by Freemasonry, his music developed in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expressing philosophical and social messages through his pieces.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the cause of Mozart's musical diversification is limited to the influence of Freemasonry, which seems to be a consequential approach. However, the starting point of the cause is Joseph II's Church reforms which awakened Mozart's latent inner world and can be interpreted as a musical reform. Thus, he became more immersed in secular music than church music, and various monumental music pieces were born.

Keywords : Church Reform, Composers, C Minor Mass, Church Music, Monumental Music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hong Oh(Hannam Univ.)

email: kingbossam@hnu.kr

Received May 24, 2023

Revised June 13, 2023

Accepted July 7, 2023

Published July 31, 2023

1. 서론

1781년,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는 아버지 레오폴트(Leopold Mozart, 1719-1787)의 품을 떠나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 정착하여 그의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 시기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인 요제프 2세(Joseph II, 1741-1790)와 황후인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Maria Theresa, 1717-1780)가 공동으로 제국을 통치하였고, 1780년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서거한 이후, 요제프 2세는 단독 황제로서 약 10년 동안 다양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황제로서 마리아 테레지아보다 7배나 많은 칙령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전제주의로서의 기틀 마련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1]. 그의 개혁은 사회 및 교육 분야부터 종교에까지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적 성향이 비엔나 시대에 와서 다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교회음악에서 세속음악으로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모차르트의 음악적 성향이 변화하게 된 배경을 황제 요제프 2세의 개혁과 연관 지어 추론하고자 한다.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다변화가 일어나게 된 계기를 단지 프리메이슨과 연관 지어 설명하지만, 이는 결과론적 접근으로서는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차르트에게 심경의 변화를 준 계기는 그보다 훨씬 전인 요제프 2세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차르트가 교회음악이 아닌 세속음악에 매진할 수 있었던 요인을 요제프 2세의 교회음악 개혁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그의 작곡 성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요제프 2세가 1783년에 교회음악 개혁을 단행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고 이를 토대로 그의 개혁 의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요제프 2세의 음악개혁과 모차르트의 비엔나 작품 활동 사이에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그 매개로서 모차르트의 마지막 미사곡인 Great Mass in C minor, K.427을 연구 도구로 선정하여 미완성으로 남겨지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절차를 통해서 요제프 2세의 개혁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모차르트의 음악적 세계관을 재해석하여 이 시대에 그의 음악의 통전적이고 양면적 가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18세기 교회음악 스타일

16세기 르네상스시대 작곡가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c.1525-1594)는 파트별로 순차적으로 노래 부르는 대위법(Counterpoint)에 호모포니(Homophony)적 양식을 가미한 가톨릭 교회음악을 대표하는 음악가이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는 천상의 소리를 추구하였는데, 이후 모차르트 시대의 교회음악도 바로 이 팔레스트리나의 음악과 같이 엄숙하고 경건하며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영성과 헌신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1]. 이러한 음악적 스타일이 모차르트 시대에까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바로 팔레스트리나 음악 양식의 지지자이자, 오스트리아 궁정악장이었던 폭스(Johann Joseph Fux, 1660-1741)의 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폭스의 음악적 스타일은 작곡가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과 살리에리(Antonio Salieri, 1750-1825) 등을 비롯한 동시대 수많은 위대한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2]. 당시 그는 경건한 음악을 지지하면서 동시대의 세속음악을 대표하는 오페라 스타일의 음악이 교회음악의 요소들로 스며들어 오는 것에 비호의적이였다.

하지만, 1749년 2월 19일에 교황 베네딕트 14세(Pope Benedict XIV, 1675-1758)가 Annus Qui 칙령에서 교인들의 헌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음악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내린 결과로 기악음악이 유럽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지역의 교회로 스며들게 되었다[3]. 이로 인해, 교회예배의 순서 중 사도행전과 복음서 낭독 사이에 악기가 들어오는 관행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가 요제프 2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악기로 예배 때 연주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당시 상당한 인기와 유행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교회음악이 지나치게 화려해지고 매우 극적인 곡들이 성행하게 되어 교회의 엄숙하고 신성한 분위기를 해치기 시작했다. 이에 반기를 든 작곡가 크라우스(Joseph Martin Kraus, 1756-1792)와 잘츠부르크 대주교 콜로레도(Hieronimus von Colloredo, 1732-1812)가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교회음악의 세속화에 대한 이슈(issue)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2.2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

요제프 2세는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시아와의 공동통치 시기 동안 순전히 그녀의 강압적인 의견에 따라 교회 개혁을 추진해야 했지만, 테레시아의 서거 후 단독 통치 시기에는 자신이 갈망하는 개혁을 단호하게 실행하였다. 당시 요제프 2세는 요제프주의(Josephinismus) 개혁 정책으로 국가의 이익수호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것은 계몽적 절대주의체제 사상에 입각하여 기독교 권계층의 권한 축소와 농노제 폐지 및 비생산적 교회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자유주의 철학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한 경제주의 철학에 가까운 것이었다[4]. 이러한 관점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선조인 카를 6세(Charles VI, 1685-1740)가 1725년에 시행한 법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30년 전쟁(1618-1648)으로 인하여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거 줄어들자 카를 6세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여 수천 명의 개신교 기술자들이 가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로 이주하게 되었다[4].

이처럼 요제프 2세는 1781년 10월 31일에 '종교적 관용에 대한 칙령(Patent of Toleration)'을 시행하여 비 가톨릭 교인들을 포용하고 오스트리아 내에 있는 교회들을 장악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기 시작하였다[5]. 이것은 교리에 관하여서는 각 교회의 권한을 인정하되, 운영 측면(조직 및 예산 등)에서는 교황의 동의가 필요하게끔 한 조치였다[6].

더 나아가, 그는 1783년 2월 25일, 예배음악에 관한 개혁(Gottesdienstordnung)을 단행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악기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즉, 예배 미사가 있는 일요일과 특정 공휴일에는 모든 악기의 사용이 허가되지만, 축일(feast days)에는 오직 오르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저녁기도(Vespers)의 시간에는 오르간을 포함한 모든 악기 사용이 금지된다. 물론 저녁기도(Vespers) 외의 시간에도 악기 사용은 할 수 없다[7].

2.3 교회개혁의 배경

그렇다면, 요제프 2세가 이러한 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 첫째로, 요제프 2세는 교회개혁을 통해 예배의 외적 화려함을 줄여 본질을 되찾자는 취지로 해설할 수 있으며 이는 교회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개혁에 우호적이었던 작가 리히터(Joseph Richter, 1749-1813)는 이 시기 교회음악은 교향곡 스타일의 웅장함과 왈츠의 가볍고 생기발랄한 요소뿐만 아니라 오페라 아리아의 화려하고 극적인 음악들

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계몽주의 작가인 페즐(Johann Pezzl, 1756-1823)도 세속적 양식으로 몰든 교회음악이 거룩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8]. 이에 요제프 2세는 망설임 없이 예배음악의 악기편성에 대해 제약을 둬으로써 이러한 현대적이고 독특한 스타일로부터 경건함을 지켜내고자 하였다.

둘째로, 요제프 2세는 예배음악을 위해 교회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 경제적으로 절약하고자 하였다. 이는 점차 가톨릭교회 내의 악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규모도 심포니 스타일의 대편성으로 변하게 되어 많은 연주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즉, 요제프 2세의 교회관은 복잡하고 화려한 예배의식을 축소하여 심미성보다는 예배의 실용성과 대중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이웃에 대한 선행과 자비, 사랑에 기초한 교회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고비용이 드는 교회음악의 예산을 줄여 사회적으로 더 시급한 현안들을 돌보아 교회가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예배를 간소화하여 신자들의 신앙심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요제프 2세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던 2,163개의 수도원 중 1/3인 738개의 수도원을 폐쇄하고 그 남은 재산은 자선 활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1]. 이러한 대처를 못마땅하게 여긴 비엔나의 대주교 미가찌(Christoph Anton Migazzi, 1714-1803)는 요제프 2세에게 서신을 보내 그의 예배개혁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 당시, 교황 비오 6세(Pius VI, 1717-1799) 또한 요제프 2세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위협을 느껴 1782년에 추기경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방문하여 그를 설득하지만 역시 성과 없이 로마로 되돌아갔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요제프 2세가 1783년의 교회음악 개혁 자료와 모차르트의 비엔나 활동 당시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상호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연구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였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미사곡, Great Mass in C minor, K.427을 연구 도구로 하여 미완성으로 남겨

지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고, 모차르트의 작곡 횟수에 대한 비교자료 분석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3.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절차로 요제프 2세의 개혁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 모차르트의 음악적 세계관을 재해석하여 이 시대에 그의 음악의 통전적이고 양면적 가치를 새로운 관점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모차르트의 작품 비교 분석

요제프 2세의 교회음악 개혁이 당시 비엔나에 거주하던 모차르트의 작곡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실증적 자료로 모차르트가 잘츠부르크와 비엔나에서 작곡한 교회음악의 작곡 횟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Table 1. Comparing Mozart's Sacred Works

	Salzburg	Vienna
Missa	15	1 (unfinished)
Oratorio	2	.
Cantata	1	1
Motet	5	1
Requiem	.	1 (unfinished)
Others	43	1
Total	66	5

모차르트의 전체작품 수를 살펴보면 비엔나에서의 교회음악 작곡 수는 5곡으로 잘츠부르크 시대의 66곡에 비해 92.5% 감소하였고 완성된 곡의 경우 95.5%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Table 1). 특히 교회음악의 중심인 예배 미사곡은 오직 1곡만 작곡하였지만, 이 역시 미완성으로 남아있어 실질적으로 완성된 미사곡은 없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였다.

Table 2. Other composers' Sacred Works

Composer	Missa	Others
Michael Haydn	over 100	
Albrechtsberger	9	45
Pasterwitz	3	17

Table 2에서와같이 비엔나에 거주한 동시대 작곡가들은 모차르트와는 달리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에 부합하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이 작품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력에 따라 작곡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 것같이 많은 교회음악 작품을 작곡하였다.

4.2 모차르트의 마지막 미사곡

본 연구의 주제로 삼은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이 1783년 2월 25일에 제정되었을 때 C단조 미사는 이미 절반 이상 작곡된 상태였다. 아래 Table 3은 현재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C단조 미사의 완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개혁 제정시기와 작곡을 그만둔 시기와 같다.

Table 3. Great Mass in C minor K.427, composed status

Order of Mass	composed status
1. Kyrie	o
2. Gloria	o
3. Credo	only sketched
4. Sanctus & Benedictus	o
5. Agnus Dei	x

따라서 모차르트는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순수한 창작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자신의 군주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자 더 이상 C단조 미사 작곡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4.3 교회개혁 이후 모차르트 음악의 다변화

모차르트는 1784년 말에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프리메이슨(Freemason)에 가입하여 잠재되어있는 마음의 소리를 Table 4와 같이 음악으로 표현하게 된다[9].

Table 4. Meaning of Late Mozart's Operas

Mozart's Operas	Meaning
Le nozze di Figaro(1786)	Transcending social boundaries
Don Giovanni(1787)	Questioning Authoritarianism
Così fan tutte(1790)	Proclivity for Enlightenment
Die Zauberflöte(1791)	Proclivity for Freemasonry

요제프 2세는 급속히 팽창하는 프리메이슨을 견제하기 위해 1785년 12월에 칙령을 발표하여 통제와 감시를 시작할 때, 많은 회원이 이 단체를 떠났지만, 모차르트는 끝까지 이들과 함께하여 지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0]. 이는 프리메이슨 특징 중의 하나인 평등주의가 신분적 차별과 억압을 겪은 모차르트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의 그의 오페라에는 자신의 철학적인 메시지, 즉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위의 표와 같이 담아 관객들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모차르트만이 가지는 유쾌한 즐거움과 현실을 타파하는 순수한 음악으로 청중에게 위안의 메시지를 선사하는 양면성을 가진 음악적 세계관으로 변모해 나아가게 되었다.

5. 논의

요제프 2세는 교회의 예식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률로 1783년 2월 25일에 예배순서(Gottesdienstordnung)를 제정해 발표하고, 그 해 4월에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에게 있어서 예배음악은 작곡가 팔레스트리나(Palestrina)로부터 시작된 구양식(Stile Antico, old style) 즉, 대위법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음악에 부합한 음악적 스타일이었다[2]. 그리하여 악기사용은 비엔나의 호프카펠레성당(Hofkapelle Cathedral)과 성 슈테판성당(St. Stephen's Cathedral)으로 제한하고 오직 일요일과 성일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대위법 음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후에는 오르간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독일어 찬송가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기악보다 성악에 비중을 두게 하였다[3].

심지어, Table 2의 동시대 작곡가 중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의 동생인 미하엘 하이든(Michael Haydn, 1737-1806)은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에 동참한 잘츠부르크의 콜로레도 대주교(Hieronymus von Colloredo, 1732-1812) 밑에서 무려 100곡이 넘는 교회음악을 작곡하여 이러한 교회개혁이 또 다른 작품 세계로의 창작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Table 2의 작곡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직업적으로 교회와 관련이 있다. 요제프 2세 통치 시절에 알브레히트베르거(Johann Georg Albrechtsberger, 1736-1809)는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파스테르비츠(Georg von Pasterwitz, 1730-1803)는 수도원장으로, 미하엘 하이든은 잘츠부르크에서 궁정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였기에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에 순응하여 음악적 화려함을 배제한 간결한 작품을 작곡하였던 것이다. 모차르트의 첫 번째 전기 작가인 니메체크(Franz Xaver Niemetschek, 1766-1849)에 따르면, 모차르트의 가장 좋아하는 작곡 스타일은 교회음악이라고 한다[9]. 프리랜서 작곡가로 교회음악 작곡에 대한 의무는 없었지만, 열망과 자부심이 컸기에 교회음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열정이 있는 모차르트가 미사곡을 단 한 곡도 완성하지 않고 교회음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대내외적인 큰 변화를 겪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과의 연관성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 자료는 모차르트의 C단조 대미사곡이다. Great Mass in c minor, K. 427은 소위 세계 3대 미사 중의 하나로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여러 교회 음악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다. 그것은 어떠한 기능적 목적이 아닌 모차르트 개인의 순수한 동기로 작곡되어 이전의 작품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그만의 독보적인 독창성을 담아내고 있다.

실제로 [대미사곡 C단조]는 1783년 1월 4일에 모차르트가 아버지 레오폴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결혼 서약'의 의미를 담은 내용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 당시에 이미 곡의 반이 완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모차르트가 작곡을 시작한 시기는 1782년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미사곡의 작곡 이유는 사랑하는 그의 아내 콘스탄체(Constanze von Weber, 1762-1842)와의 결혼을 기념하고 동시에 당시 병을 앓고 있었던 그녀의 회복을 기원하기 위함으로 전해진다. 아쉽게도 이 곡은 미완성 대곡으로 남아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주장들이 존재한다.

먼저,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교회 음악가로 활동하던 시절과는 달리 비엔나로 거처를 옮긴 모차르트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작곡가였다. 그런데도 이 곡은 그의 자발적인 작곡 동기라는 측면에서 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생계를 위한 호른 협주곡과 플룻 4중주와 같은 다른 곡들과 함께 작업에 매진하다 보니 시간 부족으로 곡을 완성을 못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이전에 모차르트의 뛰어난 작곡 능력으로 볼 때, 1783년 7월에 C단조 미사를 연주하기 위해 잘츠부르크로 이동하여 10월에 미완성 대미사곡을 연주하기까지 곡을 완성할 수 있는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근거가 미흡하다.

또 다른 가설은 모차르트가 C단조 미사를 작곡하는 목적인 콘스탄체와의 결혼과 그녀의 병이 완쾌되는 것이

었는데 이 곡을 완성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작곡 의지가 상실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인 바흐와 헨델의 음악 세계에 깊이 매료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작곡에 매우 열정적이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추측은 그의 지속적이고 순수한 창작 의지를 왜곡시키는 지극히 우연한 상황설정으로 보인다. 당시, 슈비텐 백작(Gottfried van Swieten, 1733-1803)을 통하여 모차르트는 1782년부터 바로크 음악의 수사학과 대위법과 같은 미학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연주하여 자신의 음악성을 한층 더 성장하고 다채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였다. 비록, C단조 미사가 미완성으로 남아있지만, 그의 창작 이력에 중대한 전환기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11].

결국, 모차르트가 C단조 미사곡을 작곡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열정,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곡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앞의 주장들처럼 단순히 모차르트의 내적인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훨씬 더 강압적으로 다가오는 외부적 갈등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의 핵심은 간결함과 명료함으로 예배는 물론 음악적인 부분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당시 모차르트가 작곡한 이 C단조 미사는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이탈리아 양식의 화려하고 웅장한 스타일의 음악이었기에 더 이상 C단조 미사 작곡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순수한 동기로 C단조 미사를 작곡하기 시작했지만, 군주의 개혁과 통제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포기하게 된 모차르트는 음악적 세계관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음악학자 프뢰리히(Friedrich Theodor Fröhlich, 1803-1836)는 모차르트를 “영혼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영원히 푸른 하늘 아래를 거니는 5월의 어린이”[12]로 비유할 만큼 모차르트의 성향을 낙천적으로 표현했지만, 요제프 2세의 교회음악 개혁으로 인하여 이제 그의 음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쾌하고 쾌활한 5월의 어린이와 같은 면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 요인으로 작곡의 좌절로 인해 잠재적으로 내재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면도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잘츠부르크 시절의 콜로레도 대주교로부터 늘 하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신분적 차별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비엔나에 정착하여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과 늘 재정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그의 내재되어 있던 억눌린 심정을 일깨우게 되었다[13].

비엔나에서는 군주의 통제와 억압으로 인하여 순수한 동기로 작곡하기 시작한 [대미사곡]을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마침내 프리메이슨의 사상과 결부되어 그의 억눌린 심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망과 현재 누릴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외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요제프 2세의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그의 방대한 꿈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14].

6. 결론

황후인 마리아 테레지아와 황제인 요제프 2세의 공동 섭정(1765-1780) 기간에 교회음악을 제약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지만, 비엔나의 교회음악은 세속적인 요소인 오페라 스타일과 심포니 스타일이 들어와서 화려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1781년 비엔나를 방문한 베를린의 작가 니콜라이(Christoph Friedrich Nicolai, 1733-1811)는 미사에서 끊임없이 기악음악이 흘러나오고 여러 교회에서 이러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귀족들과 시민들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배음악 성향에 만족하였다[15].

하지만, 요제프 2세는 이러한 교회음악 스타일로 인해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어져 간다고 판단하여 1783년에 예배 개혁을 통해 가톨릭교회의 전례의 질서와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예배음악에서 악기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모차르트는 비엔나에 정착하여 자신의 뜻과는 별개로 통치자의 개혁에 영향을 받아 종교음악보다는 세속음악 작곡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바로 대표적인 작품인 C단조 미사이다. 모차르트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교회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하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요제프 2세의 교회개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음악적인 좌절을 경험한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깊은 내면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출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모차르트는 세속음악에 더욱 집중하게 되어 오페라 부파와 협주곡 같은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전체적인 일반화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1] C. Eisen, S. P. Keefe, "The Cambridge Mozart Encycloped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2] Jen-Yen Chen, "Palestrina and the Influence of Old Style in Eighteenth-Century Vienna", *Journal of Musicological Research*, Vol.22, No.1-2, pp.1-44, 2003.
DOI: <https://doi.org/10.1080/01411890305921>
- [3] Reinhard G. Pauly, "The Reforms of Church Music under Joseph II", *The Musical Quarterly*, Vol.43, No.3, pp.372-382, July 1957.
DOI: <https://doi.org/10.1093/mq/XLIII.3.372>
- [4] R. C. Blitz, "The Religious Reforms of Joseph II (1780-1790) and their Economic Significanc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Vol.18, No.3, pp.583-594, 1989.
- [5] P. R. Magocsi, "With Their Backs to the Mountains",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December 2015.
- [6] P. G. M. Dickson, "Joseph II's Reshaping of the Austrian Church", *The Historical Journal*, Vol.36, No.1, pp.89-114, March 1993.
DOI: <https://doi.org/10.1017/S0018246X00016125>
- [7] L. Schenbeck, "Joseph Haydn and the Classical Choral Tradition", Hinshaw Music, June 1996.
- [8] D. Hertz, "Haydn, Mozart and the Viennese School: 1740-1780", W.W.Norton & Company, March 1995.
- [9] N. J. Le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ighteenth-Century Instrumental Music Reflected in Mozart's Opera Overtures", *Western Musicological Research*, Vol.6, pp. 157-184, 2003.
UCI: G704-001386.2003.6.003
- [10] S. C. Yeon, "Meanings of Freemason in Mozart", *Music Theory Forum*, Vol.22, No.2, pp.35-56, 2015.
DOI: <https://doi.org/10.15571/MTF.2015.22.2.35>
- [11] E. H. Smith, *Mozart's "Great" Mass: Sources, History, and Performance Practi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2019.
- [12] K. Barth, "Wolfgang Amadeus Mozart" (trans. S. M. Moon), Yesol press, 2020.
- [13] H. S. Chae, "Theological Aesthetic Study of the Music of Mozart and Its Application to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Vol.59, pp.61-91, 2018.
- [14] N. J. Le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ighteenth-Century Instrumental Music Reflected in Mozart's Opera Overtures", *Western Musicological Research*, Vol.6, pp. 157-184, 2003.
UCI: G704-001386.2003.6.003
- [15] S. C. Yeon, "Meanings of Freemason in Mozart", *Music Theory Forum*, Vol.22, No.2, pp.35-56, 2015.
DOI: <https://doi.org/10.15571/MTF.2015.22.2.35>

오 세 홍(Sehong Oh)

[정회원]



- 2005년 2월 : 영남대학교 (음악학사)
- 2015년 5월 : Eastern Illinois University (합창지휘 석사)
- 2018년 8월 : The University of Arizona (합창지휘 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교회음악, 합창, 지휘